

산업간호와 안전관리



박 중 철 과장
[노동부 안전정책과]

I. 그간의 산업재해 발생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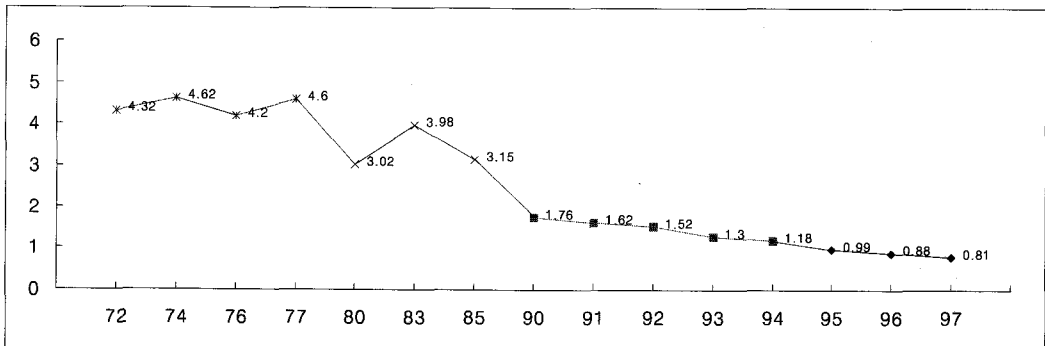
산재통계 집계기 시작된 '64년이후 '97까지 총 재해자는 306만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만7천명, 직업병자는 3만4천명으로 연 평균 9만명의 재해자와 1천4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산재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노·사·정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에 힘입어 재해율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83년에 3.98%를 기록한 이래 한 차례의 반전도 없이 계속 감소하여 '95년에는 0.99%로 선진국 진입수준인 재해율 1%미만을 달성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7년에는 0.8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감소추세 속에서도 1차 오일쇼크('73)와 정치·사회 혼란 및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80) 등 경제위기시에 재해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IMF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가 감소되었는 가운데서도 최근 사망자수는 증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구히 장애가 남는 신체장해자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전체 산업재해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되어 '97년에는 재해자 10명중 4명이 신체장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율(%)



〈그림 1〉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추이

<표 1> 사망 및 신체장해재해 발생추이

년 도	'91	'92	'93	'94	'95	'96	'97
근로자수	7,922,704	7,058,704	6,942,527	7,273,132	7,893,727	8,156,894	8,236,641
재해자수	128,169	107,435	90,288	85,943	78,034	71,548	66,770
사망자수	2,299	2,429	2,210	2,678	2,662	2,670	2,742
신체장해자수	28,629	32,006	28,088	27,617	23,586	27,394	28,854
장해재해비중(%)	22.3	29.7	31.1	32.1	30.2	38.2	43.2

주) 장해재해비중 = 신체장해지수/재해지수×1000

또한 직업병유소견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직업병자수는 '96년도에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95년도보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환자가 50명 증가하였으며 직업성 요통이 57명 증가하였고 특히 전화교환원의 VDT에 의한 경견완장해환자 등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질병이 127명이나 증가하였다.

<표 2>직업병 및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추이

년 도	'91	'92	'93	'94	'95	'96	'97
근로자수	7,922,704	7,058,704	6,942,527	7,273,132	7,893,727	8,156,894	8,236,641
직업병유소견자수	7,100	5,937	4,327	3,084	3,224	2,884	
직업병자수	1,537	1,328	1,413	918	1,120	1,529	1,424
이환율	0.19	0.19	0.20	0.13	0.14	0.19	0.17

주) 이환율 = 직업병자수/근로자수 ×1000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총 경제손실액은 '97년의 경우 7조 7,800억원으로 국민 총생산의 1.9%에 달하고, 이를 재해자 1인당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1억 1,652만원에 이른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수가 354,762명에 총 피해액이 5,163억원이고 화재사고가 피해자수 2,195명에 1,217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발생추이

년 도	'91	'92	'93	'94	'95	'96	'97
직접손실(억원)	7,015억	9,316억	8,725억	9,986억	1조 1,336억	1조 3,553억	1조5,560억
총손실(억원)	3조5,076억	4조6,578억	4조3,627억	4조9,928억	5조6,679억	6조7,767억	7조7,802억

* 직접손실 : 산재보상금

총 손 실 : 직접손실 + 간접손실(생산·인력손실, 기타비용 = 직접손실×4)

2. 금년도 산업재해발생 현황

'98. 6월말 현재 재해자수는 24,958명으로 전년동기의 33,929명에 비해 8,971명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는 1,157명으로 전년도의 1,250명에 비해 93명이 감소하였다.

〈표 4〉 '98. 6월말 현재 산업재해발생 현황

구분	'98. 6	전년 동기	증감
재해자(명)	24,958	33,929	△ 8,971
재해율(%)	0.32	0.42	△ 0.10%p
사망자(명)	1,157	1,250	△ 93

* 주) 재해율은 '98. 3월말 현재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잠정치임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전체 재해의 81.5%에 해당하는 14,96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입사한 지 6개월미만의 신규 근로자의 재해가 전체의 44.1%(11,002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IMF이후 여건변화와 전망

최근 부도·폐업 증가 및 가동률 저하로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재해자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사의 관심이 경영난 극복 및 고용불안 해소에 편중되어 안전의식이 완연에 따른 사망재해 증가와 대형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

금년들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감축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경우도 최근 직종·업종간 이동 등 입·퇴사의 증가로 해당 작업에 대한 충분한 안전지식도 없이 작업에 투입되기도 하고

특히, 배치 전환되어 이전과는 다른 업무를 맡거나 회사를 옮겨 작업환경이 크게 변화된 근로자들의 경우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리를 옮기지 않은 기존근로자도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구조 전반적으로도 생산기술의 고도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로 VDT증후군 등과 같은 신종직업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1997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가 완화되고 안전·보건 교육 및 위험기계·기구 검사 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4. 보건관리와 재해예방대책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MF체제 이후 악화된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들의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요즘 일부 회사에서는 작업시작 20~30분전에 근로자들이 모여 기공체조를 한다던지, 명상, 즐거운 대화시간, 년센스퀴즈 등을 실시한 결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게 되어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동료애도 좋아졌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다.

안전사고는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려운 이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재해를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활력있는 직장생활이 될 것이다.

또한 보건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작업장내 조명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토록 하고 소음에 의한 집중력 감퇴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해선 철저하게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MSDS교육 및 이에 따른 예방을 철저히 하므로써 화재나 폭발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작업배치과정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및 근로자의 체격, 체력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현장에 배치할 경우 요통 및 기타 산업재해를 현저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란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직업병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비록 현 상황이 어렵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적인 자세로 더욱 열심히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해 우리 모두 힘쓴다면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회사, 국가 모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